



# INSIDE REPORT KOREA WINE CHALLENGE 2021

지난 6월 21일 문을 연 KWC 2021은 예선 심사를 거쳐 6월 30일 마지막 결선을 치르며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챌린지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해본다.

글 박초롱 사진 장영수



1



2



3

## 화려한 경합과 축제의 장

이번 KWC 2021은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발(發) 팬데믹의 영향으로 우려를 받았던 것과 달리 21개국에서 총 888종의 와인이 출품되어 어느 해보다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국가별 참가 현황을 살펴보면 호주, 칠레, 이탈리아가 최다 출품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세 곳의 나라에서 각 20개가 넘는 와이너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네덜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조지아, 그리스, 레바논,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높은 품질의 와인을 출품했다. 이를 통해 한국 와인 시장 진입 시에 1순위 고려 대상이 되는 KWC의 국제적인 명성과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출품된 와인 중 옥석을 고르는 예선 심사는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나흘간 진행됐다. 참가 와인의 수가 많아지고 품질이 평균화된 탓에 심사위원단은 예선에서부터 열띤 토론을 펼치며 심사에 더욱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네 개의 테이블마다 3~4명의 심사위원이 조를 이뤄 자리한 심사장에서는 각 조장의 역할이 돋보였다. 의견이 갈리는 와인이 등장할 때마다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이끌며 조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점수의 평균을 조절했다. 결선에서 다른 심사위원에게 재심사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세심한 재고도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와인을 선별한다는 KWC의 취지를 따라 업장에서 고객들과 대면하며 어떤 와인을 선호하는지 파악한 경험이 심사에 반영되었다.



4

1. KWC 2021 결선 공식 글라스 자페라노
2. 고심의 흔적이 느껴지는 심사 채점지
3. 트로피 레드 부문 심사에 사용된 자페라노 글라스
4. 결선 심사를 끝낸 심사위원단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최훈 본지 발행인
- 5~6. 공정한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심사위원단의 모습



5



6



최종 결선날, 수여식 이후 함께 모여 포즈를 취한 심사위원단과 최종 본지 발행인

### 올해의 와인이 탄생하는 순간

예선이 끝난 주말, 휴식과 재정비의 시간을 보낸 코리아와인챌린지 사무국과 심사위원단은 6월 28일 결선 심사를 재개했다. KWC 최고의 영예인 트로피 와인과 베스트 컨트리 와인이 결정되는 결선 마지막 날인 6월 30일까지 사흘간 심도 있는 결선 심사가 이어졌다. 시작 전부터 이미 대동소이한 와인 품질로 인해 결선 경쟁 역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조화로운 밸런스가 돋보이는 와인이 중점적으로 조명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예선을 통과한 맛 좋은 와인과 함께 더욱 길어진 토의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결선 내내 역시나 뜨거운 심사 열기로 이어졌다. 칠레의 화이트 와인, 특히 샤르도네는 그간 시장에 나왔던 그 어떤 칠레 와인보다 좋은 밸런스를 보이며 심사위원단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올해 처음 출품한 레바논과 이스라엘, 헝가리의 레드 와인도 복병으로 등장했다. 포도 품종의 개성을 잘 살려 풍부한 아로마를 느낄 수 있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망의 결선 마지막 날, 심사장에서는 동료 소믈리에들을 만나 인사를 주고받는 심사위원단의 활기참과 올해의 와인이 밝혀진다는 설렘이 느껴졌다. 매년 높아지고 있는 KWC의 위상에 맞는 와인을 날카롭고 공정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진중한 분위기도 함께였다. 올 KWC 최종 결선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모두 15명으로 김현수 심사위원단 대표와 정하봉 부대표를 비롯해 김성국, 김시보, 김철, 김혜영, 배운하, 양운주, 우두희, 유상선, 이동규, 이동우, 조내진, 홍광현, 황승호 심사위원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수상 분야별 와인이 탄생하는 순간마다 심사장의 열기는 고조되어갔다. 가장 먼저 트로피 수상을 확정 지은 것은 포터파이드 와인 부문이었다. “진한 황금색과 넛트 향으로 흡입을 곳이 없다”라고 평가받은 세투발 지역의 포터파이드 와인과 “주정 강화 와인의 특징이 잘 살아있어 한국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알맞은” 마테이라 지역의 포터파이드 와인이 치열하게 경쟁했다. 결과로 엔리크 엔 엔리크 마테이라 말바지아 10년 (Henriques & Henriques Madeira Malvasia

10 Years Old)이 트로피 포터파이드의 영광을 안았다.

트로피 스위트 카테고리 경쟁 역시 치열했다. “묵직한 단맛과 밀도”를 보여주는 와인이나 “향이 선명하고 복합미가 매력적”인 와인이냐를 논의한 심사 끝에 호주의 드 보톨리 딘 바트 5 보트리티스 세미용 (De Bortoli Deen Vat 5 Botrytis Semillon)이 수상했다. 라이트한 질감에 복합미를 잘 살려 조화를 이룬 스위트 와인으로 심사위원의 선택을 받았다.

트로피 로제 수상의 영광은 이탈리아의 몬카로 마르케 로사토 오가닉 (Moncaro Marche Rosato Organic)가 차지했다. 다소 의외의 결과라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한국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로제 와인보다 라이트한 색상을 보이지만, 과실 향이 풍부하고 좋은 밸런스를 보이는 만큼 이 기회에 한국 와인 시장에 보다 다양한 로제 와인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심사평이 타당한 근거로 작용했다.



트로피 스파클링 부문에선 비교적 큰 이견 없이 프랑스 상파뉴 지역에서 난 고세 그랑 로제 브뤼엣 (Gosset Grande Rosé Brut)이 수상했다. 산도와 당도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 로제 스파클링 출품작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이는 품질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KWC 수상 와인이 발표되는 시기인 여름에 맞춰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로피 스위트에 이어 트로피 화이트 부문에서도 호주 와인이 두각을 드러내며 롱 돌란 화이트 레이블 샤르도네 (Rob Dolan White Label Chardonnay)가 수상했다. “풍부한 아로마와 미네랄리티가 느껴지는 좋은 와인”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수상 결과 발표 때 미수입 와인으로 밝혀지며 심사위원단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빠른 시일 내에 한국 시장으로 수입되기를 기대해본다.

언제나 가장 치열한 경쟁이 붙는 것은 트로피 레드 부문이다. 올해에는 뛰어난 두 와인의 양강 구도로 진행됐다. 과실의 풍미와 무게감이 잘 살아있고 복합미가 있는 나파 밸리의 까베르네 소비뇽과 날렵하면서도 섬세한 피니쉬가 매력적인 호주의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의 우열을 가리지 못해 심사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다.

### 새롭게 개편된 수상 카테고리

기존에 수여했던 <트로피 Trophy> <베스트 컨트리 Best of Country> <골드 Gold> <실버 Silver> <브론즈 Bronze> 메달에 덧붙여 신설 카테고리가 추가되었다. 트로피 와인과 동일한 영예를 가진 <메달 오브 아너 Medal of Honor>와 출품 와인 수가 적어 베스트 컨트리 부문 경쟁적으로 등장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참여국을 위한 <베스트 오브 마이너 컨트리 Best of Minor Country> 부문을 신설했다.

첫 메달 오브 아너 수상의 영광은 KWC에 꾸준히 참여하며 한국 와인 시장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캐나다 와인의 리더, 필리터리 (Pillitteri Estates Winery)에게 돌아갔다. 올해 참여한 이들의 아이스와인은 행복을 부르는 맛으로 무거웠던 심사장을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주었다. 출품작인 패밀리 리저브 까베르네 소비뇽 아이스 와인 (Family Reserve Cabernet Sauvignon Icewine)과 프로즌 툰드라 비달 아이스 와인 (Frozen Tundra Vidal Icewine), 비달 아이스 와인 리저브 (Vidal Icewine Reserve) 모두 골드 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올해는 헝가리, 조지아, 루마니아, 이스라엘, 레바논 등지에서 소규모 출품된 고품질의 와인이 유독 많았다. 이들의 와인을 한데 모아 경쟁을 붙여 신설한 베스트 오브 마이너 컨트리에서는 레바논 와인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엘리야스 타니오스 토마 앤 선스 (Elias Tanios Touma & Sons)의 샤토 헤리티지 패밀리 리저브 (Château Heritage Family Reserve)가 수상했다.

7~8. KWC 2021 올해의 와인이 밝혀지는 순간  
9. KWC 2021 수여식이 끝난 후 수상 와인을 확인하는 심사위원단

